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 2026 상반기 안전 결의대회 개최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청렴문화 정착 다짐

정대전 기자 | 2026.03.23. 14:07:52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지사장 하신혜)는 3월 23일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2026년 상반기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 수준 향상과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이행서약서 교환식을 진행했다.

하신혜 지사장은 “모든 공사와 작업에서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형식적인 안전이 아닌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현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는 앞으로도 매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